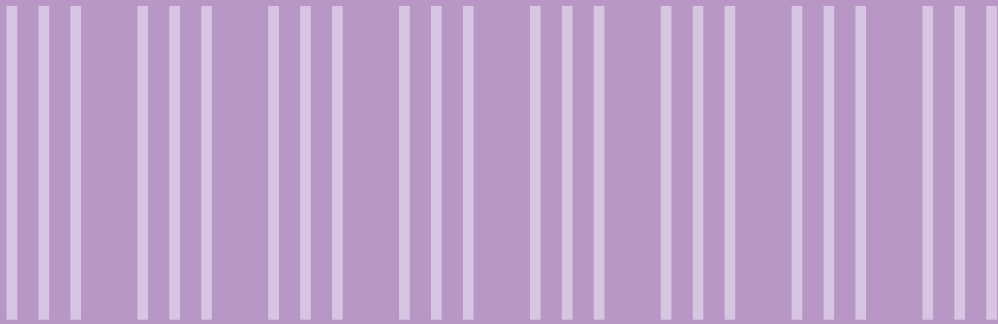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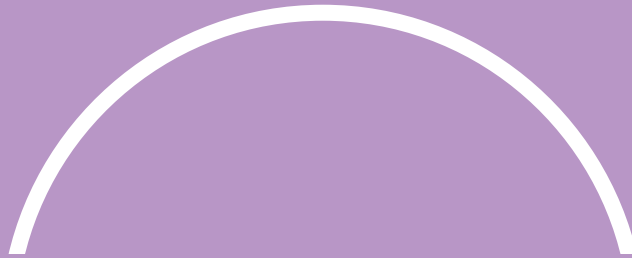




2023.12.31.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미래의제 | 23-16호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상직, 이슬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상직 부연구위원

이 슬 서원대학교 외래교수

요약

- 중증장애인과 노동
 - 포토보이스: 당사자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는 참여형 실행연구
 -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 결론
- 참고문헌

요약

- 이 연구는 ‘탈시설’ 사회라는 지향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려는 탐색 작업임
 - 장애인의 일과 일자리 정책은 오랜 의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 ‘탈시설’이라는 의제가 등장한 이래 새로운 맥락에서 주목 받고 있음
 - 기존 논의가 경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설에서 나온 이들의 삶에서 ‘노동’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됨
 - 이러한 가운데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실험은 주목할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이 연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 사업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함
-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음
 -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참여적 실험연구의 한 방법으로 물리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맥락에 있는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 보려는 시도임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다수가 발달 장애 등으로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음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좋은 점은 ‘출근한다는 것’ 자체이고, 힘든 점은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임
 - 연구참여자들이 좋은 점으로 꼽은 것은 ‘출근한다는 것 자체’, ‘회사에 소속되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 ‘사회구성원이라는 느낌’, ‘동료’, ‘자유로움’이었음
 - 연구참여자들이 힘든 점으로 꼽은 것은 ‘끼워넣기식 맞춤’, ‘힘난한 출·퇴근길’, ‘관리자의 과중 업무’, ‘전쟁터 같은 일터’,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었음

요약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궁금한 점은 '계속 일할 수 있는지'였고, 바라는 점은 '계속 일하고 싶다'였음
 - 연구참여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계속 일할 수 있는지'와 '일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없는지'였음
 -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바램은 '계속 일하고 싶다'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직무의 다양화'였음

- 이들의 경험과 생각은 '일'의 의미를 되문게 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
 -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으로 표현한 '일'의 의미는 '문'과 '길', 그리고 '동료'로 요약할 수 있고, 이는 '관계'라는 은유로 수렴됨
 - 이러한 은유는 우리에게 '일'의 의미를 문게 하는 한편, 오늘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갖는 한계를 드러냄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또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
 - '중증장애인'과 '노동'을 연결해보려는 이 시도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음

“이것도 노동이다!”는 2020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대표 슬로건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에서도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장애운동단체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주장하면서 힘을 모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사례로 장애인과 노동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탐색적 작업이다. ‘장애인의 일’이라는 의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나 최근 탈시설이라는 의제가 등장한 이래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020~21년에 국회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2021년에는 정부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정책의 기초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시설 이후 중증장애인의 삶의 조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적 고려 사항의 핵심은 주거와 일자리이나 주거에 관한 논의에 비해 일자리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들 정책의 다수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는 역할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 또한 다수는 경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정책을 검토했다. 이른바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연구도 해당 일자리의 의미를 복지로 보는 등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한 대안이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실험 사례의 현장에, 그곳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2023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58만 9,047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96만 8,348명이다(경제활동참가율은 37.4%). 이 중 취업자는 93만 5,261명이고, 실업자는 3만 3,087명이다. 즉 고용율은 36.1%이고, 실업율은 4.5%이다.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경제활동참가율은 65.3%이다. 고용율은 63.5%이고, 실업율은 2.7%이다(이윤지 외, 2023: 6).

등록 장애인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4.2%이다. 또한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2%이고,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2%이다.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 중후반이고, 정신·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중반이다(이윤지 외, 2023: 9).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나 이 연구에서 만난 이들은 주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된다.

한편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는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전제되어 있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1a; 조혁진·명숙·고태은, 202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에 한국 정부에 제시한 ‘최종견해’에서 ‘근로 및 고용’의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 근거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호작업장 위주의 폐쇄적이고 분리적인 접근에 우려를 표현했다.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을 분리·배재하는 시설 형태의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장애인만 일하는 ‘보호고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개방고용’으로 전환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 권고를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3대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사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의 개방성이다. 시설과 같은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의 형태로 폐쇄성을 띠고 운영해왔던 장애인 노동 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무를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권익옹호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포함한다. 문화예술활동은 미술, 음악, 연극과 관련된 활동으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모든 예술활동을 포함한다. 인식개선활동은 장애인권 강사양성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직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지자체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러한 직무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 시행 이후 중증장애인의 ‘노동’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른바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의 이러한 노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에서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의 범위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의의에 이르기까지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열띤 토론과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것만이 노동인가’라는 쟁점이 주를 이루었고 ‘최소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더욱더

개별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인권네트워크 바람, 2021b). 이러한 논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제되는 생산성 개념을 노동시장의 절대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인가’라는 원론적 물음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이 연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현장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현장 사례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의미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측면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탈시설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조건을 탐색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을 활용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한 방법으로 물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언어로 소통하기 어렵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맥락에 있는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 보려는 시도다 (Wang and Burris, 1997). 연구참여자는 연구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심층적인 이야기를 시각화하여 전한다(Jurkowski and Paul-Ward, 2007).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다수가 발달 장애 등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는 ‘사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이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했다.

연구자 중 한 명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¹⁾ 이때 맺은 관계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 인력의 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5명의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4명의 근로지원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일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로지원인은 공공일자리의 참여자인 당사자가 언어적인 소통이나 심층적 내용의 표현이 어려울 때 근로지원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같이하며 함께 느낀 공공일자리의 현장 경험을 표현해 주었다.

〈표 1〉은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간략한 생애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하늘’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가족(부모님, 형)과 살고 있으며 발달장애를 가졌다.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비장애인과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학교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었다. 장애인 교육기관인 ‘평생센터’에 다니던 중 기관 소개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보배’는 20대 후반의 여성이며 발달장애를 가졌고 가족(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과 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발달장애인센터에 다니던 중 소개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1) 이 연구자는 2020년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강사로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나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토론회 및 좌담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탐구해 오고 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

번호	가명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장애유형	공공일자리 경력	공공일자리 경험 유형
1	하늘	남	30대 초반	서울시	발달장애	4년차	참여자
2	보배	여	20대 후반	서울시	발달장애	4년차	참여자
3	오공	남	20대 중반	서울시	발달장애	4년차	참여자
4	테리	남	40대 초반	서울시	발달/지체장애	2년차	참여자
5	인연	여	40대 초반	서울시	뇌병변장애	4년차	참여자

▶ 근로지원인

번호	가명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당사자 지원경력	근로지원 경력	공공일자리 경험 유형
6	우박	남	50대 중반	서울시	2년 미만	2년차	공공일자리 근로지원
7	보금	여	60대 중반	서울시	4년 미만	4년차	공공일자리 근로지원
8	미소	여	60대 중반	서울시	4년 미만	4년차	공공일자리 근로지원
9	하하	남	60대 초반	서울시	6개월 미만	2년차	공공일자리 근로지원

마찬가지로 발달장애를 가진 ‘오공’은 20대 중반 남성이며 가족(부모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수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공공일자리 참여 전에는 장애인센터에서 복지형 수업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식음료 판매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테리’는 40대 초반 남성으로 중증장애인이다. 어릴 적에 가족(부모님, 누나)과 함께 살았으나 가수의 꿈을 키우던 중 18세에 오토바이 사고로 지체·발달장애를 갖게 되었다. 당시 치료비로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 결국 시설에 입소해 39세까지 그곳에서 지냈다. 2019년에 탈시설 정책으로 시설에서 나와 지금은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다. 공공일자리는 지원주택의 코디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다.

‘인연’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어릴 때부터 뇌병변 장애가 나타나 신체를 쓰는 것이 불편했지만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꿈 많은 시절을 보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시작(202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자로 참여하여 일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근로지원인 모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현장을 전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했으며 연구참여자로써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자료는 2023년 9월 초순부터 2023년 11월 초순까지 수집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그 절차를 파악, 모집, 교육, 기록, 서술, 관념화, 발표, 확증의 8단계로 구분한다(Latz, 2018). 이 연구에서도 이 절차를 따랐다(<표 2>).

‘파악’ 단계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장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계획하고 설계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결된 주변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인하여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모집’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인적 연결망을 활용한 유목적표집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사전 모임을 통해 모집한 당사자 및 근로지원인들에게 연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윤리적 고려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교육’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진촬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온라인 전시 공유 공간인 패들렛(padlet.com)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선행 연구의 예(김경철·이민영, 2022)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 단계에서 사진을 찍는 요령과 인물사진은 가급적 피할 것 등의 촬영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각각의 주제를 연구참여자와 논의하였다.

[표 2] 포토보이스 자료수집 세부 진행 내용

회차	단계	내용	소요시간
1	사전 모임	- 연구브리핑 :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 방법 및 절차 설명 - 연구참여동의서 : 당사자 5명, 근로지원인 4명 참여	60분
2	주제정하기	- 사진촬영 및 윤리적 내용 설명 - 패들렛 소개 및 사용방법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현장이야기에 대한 주제 정하기 : 좋은 점, 안 좋은 점(힘든 점), 바라는 점, 일의 의미	60분
3	주제 [1]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 - 사진 게시 및 공유 - 사진에 담긴 이야기 나눔	60분
4	주제 [2]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 - 사진 게시 및 공유 - 사진에 담긴 이야기 나눔	60분
5	주제 [3, 4]	-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궁금한 점, 바라는 점 - 사진 게시 및 공유 - 사진에 담긴 이야기 나눔	60분
6	주제 [5]	- 일의 의미, 나의 삶에서 일이란 ○○○이다. - 사진 게시 및 공유 - 사진에 담긴 이야기 나눔	60분
7	마무리	- 연구자료 확인 정리 - 추가하고 싶은 내용 -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 총평과 소감을 나누며 종결	90분

정해진 주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 안 좋은 점(힘든 점), 궁금한 점, 앞으로 바라는 점, 일의 의미로 선정하였다. 풍부한 자료수집을 위해 주제별 사진은 10장 이내로 촬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다음은 ‘기록과 서술’ 단계다. 참여자가 사진을 촬영하여 패들렛에 게시하고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5회 시행하였다. ‘사진을 설명하여 주세요’, ‘이 사진을 촬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진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등을 기반으로 질문(Hussey, 2006)하였고 대화의 흐름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진과 이야기 이외의 자료 수집이나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매회의 현장 분위기와 연구자의 생각,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담은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갖게 된 질문이나 의문점은 참여자와 추후 소통하여 확인하였다.

‘관념화’는 질적연구에서 범주화 작업에 해당하는 절차로 사진이 상징하는 의미를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여 코딩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진 자료와 인터뷰 진술문을 반복 검토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사를 맥락화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발표와 확증’은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사진을 전시하고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다. 참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이미지를 통해 강력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히 강조된다. 참여자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경험하면서 전하고 싶은 목소리를 담은 사진을 촬영하여 패들렛에 전시하고 주제 모임에서 발표하였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하고 취합한 연구 결과를 다시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사진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참여자들과 미리 만나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Latz, 2018). 이 외에도 인터뷰 녹취,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익명처리에 대한 내용, 개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고지, 연구참여 도중 참여 의사가 없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강조하였고,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연구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한 사진 자료는 총 67장이다. 관념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주제는 다섯 개이다. 첫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 둘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 셋째,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궁금한 점, 넷째,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바라는 점, 다섯째, 공공일자를 통해 본 일의 의미이다.

3

당사자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

첫 번째 주제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출근한다’는 것 자체, 회사에 소속된다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꾸는 것, 사회구성원이라는 느낌, 동료, 자유로움을 꼽았다. 이를 표현하는 사진과 발언을 소개한다.

(1) 회사에 소속되어 출근도 하고 월급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일상을 산다는 것, 월급이란 것을 받는 것, ‘출근’을 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에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다.

[사진 1] 나도 출근을 합니다(우박)



[사진 2] 월급도 받아요(우박)

지급항목	금액(원)	공제항목	금액(원)
기본급	750,360	근로소득세	-
활동수당	0	공인세	-
교통비수당	0	국민연금	0
방문료	0	건강보험	0
차대수당	0	장기보험	0
교통수당	0	교육보험	6,750
지급총액	750,360	공제합계	6,750
실지급액(원)		743,610	

○ 공제항목
- 근로소득세 : 과세금액 기준 근로소득세 2%세율로 산정(2023년 9월 기준)
- 공인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월소득액의 4.5%
- 건강보험 : 월소득액의 3.545%
- 장기보험 : 건강보험료의 0.7%인 100%
- 교육보험 : 과세금액의 0.9%
비고
- 국민연금보험료 일액당 2023년 9월 기준 일액당 1,000원 이상만 납부
- 국민연금 납부액은 해당월 본인액에 10%씩 과세되고, 납부액의 10%가 본인 몫으로 지급
○ 지급항목
- 기본급 : 750,360(월 2023년 9월 기준)

사진 설명: 태리 님이 출근하는 모습과 태리 님의 월급 명세서를 근로지원인이 촬영한 것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된 일상의 소중함이 출근하는 것 자체와 월급에 대한 조명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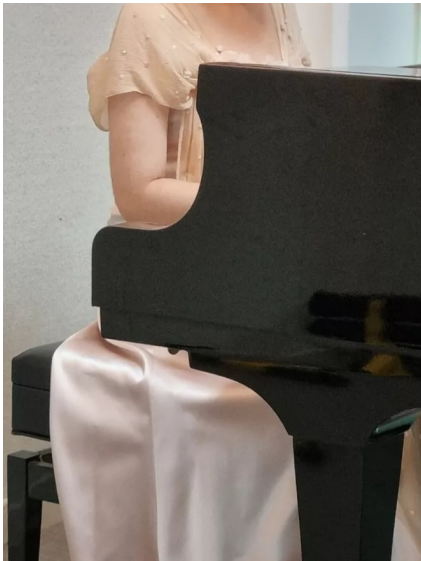
“공공일자리가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거의 집에만 계셨을 텐데요. 일자리 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원을 다녔는데 그때보다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출근이라는 것을 하니, 사회적 활동을 해서 그런가 표현도 많아지고 사회적 소통도 늘어나고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성장하셨어요” (미소, 그룹인터뷰 내용 중)

“월급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에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그에 따른 급여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이분들의 삶을 참 윤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인으로서 잘 산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박, 그룹인터뷰 내용 중)

(2)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꾸는 것

공공일자리는 문화예술활동을 직무로 포함한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기도 하며 하고 싶은 일을 꿈꾸기도 했다.

[사진 3] 피아노를 치는 것이 좋아요(미소)



[사진 4] 꿈을 꿀 수 있는 것(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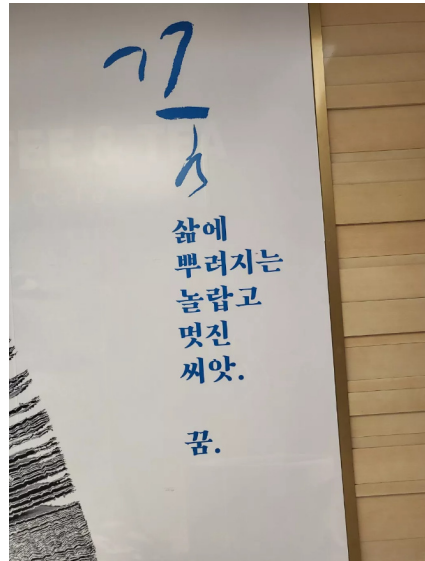


사진 설명: 사진 3은 공공일자리 참여자 보배 님이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근로지원인이 촬영한 것으로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사진 4는 다양한 경험은 직업을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담은 문구를 오공 님의 근로지원인이 촬영한 것이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며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도 받아본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확장되면서 참여자들은 일과 함께 성장한다. 참여는 성장과 꿈의 발판이다.

“피아노가 좋아요. 댄스도 좋아요. 드럼도 치고 북도 치고 했어요.” (보배, 그룹인터뷰 내용 중)

“우리 보배 님은 드럼을 치는 것이나 피아노 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공공일자리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특히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보배 님 꿈을 이루어주려고 홀 공간을 대여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쳤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실현된 경험이...하고 싶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특히 이분들은 경험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소, 그룹인터뷰 내용 중)

“공공일자리를 하며 꿈을...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니까 재밌는 일도 발견하고 ‘다음에 뭐하지?’ 하는 꿈을 꾀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하, 그룹인터뷰 내용 중)

(3)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노동하는 일상이 시작되면서 일해서 번 돈으로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에게 자신도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5] 동료들과 카페에서(보금)



사진 설명: 카페에 동료들과 함께 나란히 앉은 뒷모습이 꼭 비장애인 같다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뒷모습을 근로 지원인 보금 님이 촬영한 사진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몸이 힘들지만 참으며 출근하고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소속된 동료의 존재 또한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센터 카페에서의 모습인데 하늘 님이 동료들과 나란히 커피숍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 이 뒷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장애인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어쩌면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런 일상이 정말 쉽지 않아요. 공공일자리가 아니었다면 집에만 있었을 텐데...일자리로 사회활동을 하니 이런 일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단순 노동같은 일은 예를 들면 타이핑 치는 것들어요. 그것만 하고 끝이고 아무런 사회적 소통이나 연결이 없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그런데 이 공공일자리는 이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확장, 말하자면 ‘구성원화’되도록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이게 아니었다면 이런 것을 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하하, 그룹인터뷰 내용 중)

“하늘 님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먹을 것이 보이면 무조건 가서 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건을 사고 밥값을 지불하는 것을 하실 줄 알게 되었어요. 직불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이것은 사회성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표현에 있어서도 절대 말을 안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먹고싶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이제는 종종 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감동하셨던 게 밥먹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구요. 그건 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나서 하늘 님에게 생긴 큰 변화예요.”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응’은 중증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일 출근하고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을 사는 것, 이런 일상이 공공일자리를 하며 하루하루 쌓여간 것이 사회적응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한다.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동료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

연구참여자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으로 끼워 넣기식 직무 배정, 험난한 출퇴근 길, 관리자의 과중한 업무, 전쟁터 같은 일터,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등을 꼽았다.

(1)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

연구참여자들은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할 수 없고 정해지는 대로 따라야 하는 구조상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를 지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다. 다음은 그에 해당하는 사진과 인터뷰 발언이다.

[사진 6] 끼워맞추기 식 프로그램(하하)



[사진 7] 배우기 싫은 것 배우기 힘든 것을 배우러 들어가는 좁고 어두운 문(하하)



사진 설명: 사진 6과 사진 7은 배우기 싫은 것을 배우러 가야 하는 고충을 옆에서 지켜 본 공공일자리 참여자 오공 님의 근로지원인이 촬영한 사진이다. 맞춤형이라고 하나 현장은 때로 '사람을 직무에게 맞추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블록형 퍼즐의 '끼워 맞추기'라는 상징으로 표현하였다(사진 6). 사진 7은 배우기 싫은 것을 배우러 들어가는 마음을 어둡고 비좁은 곳에 억지로 들어가야만 하는 당사자의 작은 뒷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배우기 싫은 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어나니까 해야만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날은, 배우기 싫은 것을 배우러 가는 길은 프로그램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한숨부터 쉬어지고 참 힘들어요.” (하하, 그룹인터뷰 내용 중)

우박 : “공공일자리 어때요? 좋으면 오른쪽 손, 싫으면 왼쪽 손 선택해봐요.”

테리 : (왼쪽 손 선택)

우박 :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 해서 싫어요?”

테리 : “응.” [온라인 개별인터뷰 내용 중]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데 인권을 배워요. 인권 강사를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게 이분 일인지 근로지원인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권리를 외치는 일은 좋은데 정말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공공일자리가 겉보기에만 좋은 속 빈 강정 같아요.” (우박, 온라인 개별인터뷰 내용 중)

“소감 나누기를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표현이 힘들잖아요. 활동하면서 표정이 밝거나 웃는 행동 관찰 같은 거로 소감을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언어표현도 힘들뿐더러 대신 소감을 말하려니 참 힘들어요” (미소, 그룹인터뷰 내용 중)

[사진 8] 속 빈 강정(우박)



[사진 9] 소감나누기 힘들어요(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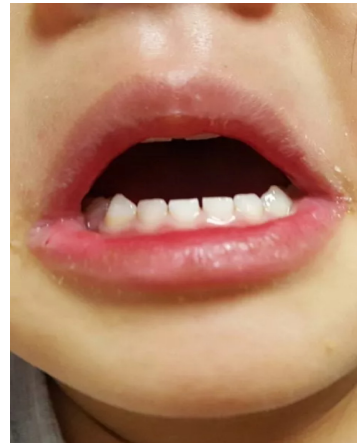


사진 설명: 사진 8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권리를 외치는’ 일은 마치 알맹이와 같은데 캠페인이나 퍼레이드와 같은 권익옹호활동이 대폭 축소되고 중증장애인이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포트폴리오 만들기와 같은 작업이 제시될 때 이 일이 참여자의 일인지 근로지원인의 일인지 모호하다는 점을 ‘속 빈 강정’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9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든 입을 표현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언어표현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에게 소감을 묻는 일이 많은데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근로지원인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

(2) 관리자의 과중 업무

공공일자리 현장에서 전담 인력으로 일해 온 연구참여자는 관리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 센터에 관리자가 한 명씩 배치되는 상황에서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힘들이었다.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짜야하는 게 힘들어요. 서울은 전담 인력이 센터별 담당자가 한 명씩 배치가 되는데 센터에 노동자가 20명일 때도 있고 30명일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근무일정표를 짜야하고 인원을 관리해야 하니까...다른 지역은 10명당 1명인 곳도 있다던데...” (인연, 개별인터뷰 내용 중)

인연 님은 제한된 공간인 프로그램실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럴 때에는 감옥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다음의 사진을 발표했다.

[사진 10] 인원 관리의 부담(인연)



사진 설명: 1인의 관리자가 총당하기에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고충을 나타낸 사진이다. 개별적으로 맞추어 직무를 구성하여 배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의 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울에서 전담 인력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한 기관에 한 명으로 배정된다.

관리자의 업무 과중은 일자리의 질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 맞춤 직무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원 관리의 부담을 보다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험난한 출퇴근 길

공공일자리가 힘든 점 중 또 하나는 출퇴근 길이다. 저상버스 수가 넉넉하지 않고, 보도블럭은 울퉁불퉁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은 여전히 무척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의 출퇴근 길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사진 11] 저상버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미소)



[사진 12] 아직도 험한 출퇴근 길(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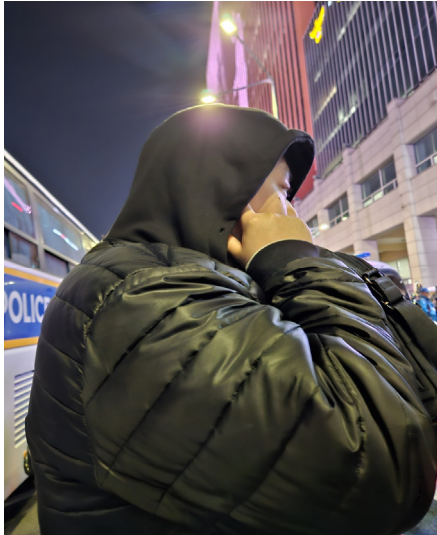
사진 설명: 사진 11과 사진 12는 근로지원인 미소 님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현장을 경험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대신 표현한 사진이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과도 맞닿아있다. 미소 님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행되면서 이동권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전쟁터 같은 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일터는 시끄러운 환경에 종종 노출된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데 시끄러운 소리는 이 분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발달장애인은 소리에 정말 예민해요. 그런데 시끄러운 장소에 가야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면 하늘 님이 귀를 틀어막고 있어요. 사이렌이 계속 귀에 울린다고 생각하면 어땠겠어요? 발달 장애인에게는 시끄러운 장소가 그런 것과 같은 데미지인거예요.”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사진 13] 시끄러운 장소는 힘들어요(보금)



[사진 14] 때로는 전쟁터 같아요(인연)



사진 설명: 사진 13은 일자리에서 직무 프로그램을 하거나 거리에서 권익옹호활동을 할 때 소리에 예민한 발달장애인은 고통스러운 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귀를 막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사진 14는 관리 업무를 했던 인연 님이 촬영한 전쟁기념관의 탱크 사진으로 때로는 제한된 공간에 참여자들이 많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장의 환경을 전쟁터로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

(5) 사람들의 시선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는 이들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했다. 출퇴근을 하며 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지하철이나 버스, 거리, 식당 등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아직도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은 **씨를 막 위아래로 찌려보고 하더라구요. 이분들 앉았는데 자리를 막 옮기기도 하고...특별히 뭘 한 게 없는 데도 그럴 때 정말 화가 나요. 아직도 인식이 이런가 싶고...장애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견없이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거미가 혐오스럽게 보여도 혐오스럽다는 표현은 이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 장애인들이 있으므로 이 사회의 복지가 꽃을 피우고 바로 서 갈 수 있듯이 햇살에 반짝이는 영롱한 진주같이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사진 15] 거미줄에 맺힌 빗방울처럼 진주같이 봐주었으면...!(보금)



사진 설명: 비 오는 날의 거미줄은 물방울이 맺혀 영롱한 모습을 보여준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하늘 님의 근로지원인은 하늘 님이 출퇴근할 때나 사회에서 활동할 때 못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앞서 살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선택 없는 직무, 관리자의 인력 부족, 험난한 출퇴근 길, 사람들의 혐오 시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

3) 권리중심 공공일zur리에 궁금한 점

연구참여자들은 권리중심 공공일zur리에 궁금한 점을 한가지로 표현했다. “계속 일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를 물음표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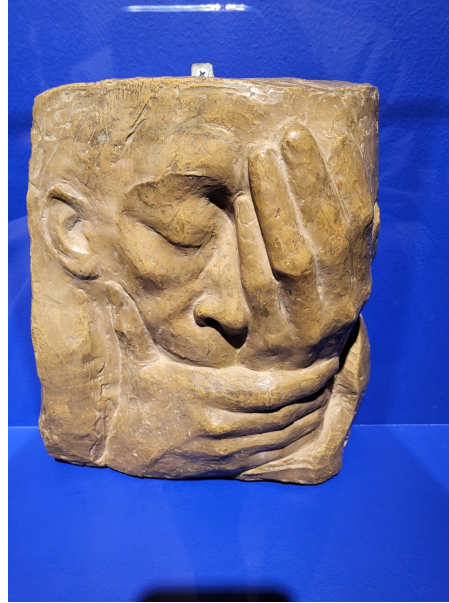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분들이 갈 곳이 있을지 막막해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되는데...우리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사진 16] 우리도 비장애인같이 나이가 들어
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보금)



사진 설명: 사진 16은 노인공공일자리 사업인 '노노케어'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일하는 뒷모습을 공공일자리 참여자 하늘 님의 근로지원인이 담은 것이다. 노란 조끼를 입고 일하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증장애인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사진 17] 시간을 늘려주실 수 없나요(하하)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일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는 없나요?”도 궁금한 점으로 남겼는데 이는 계속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염려하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라면서 조심스레 던진 물음이었다. 일자리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사진으로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다(〈사진 17〉).

“시간이 줄었는데, 시간을 늘려줄 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는 싶은데 말을 할 수는 없는...이런 심정입니다.”
(하하, 그룹인터뷰 내용 중)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은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다’에서 비롯되는 불안은 이 사업이 이러한 국면에 놓여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공공일자리에 바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바라는 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바라는 점은 계속 일하고 싶은 바람과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직무체계가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 세상과 소통하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타났다.

(1) 계속 일할 수 있기를

연구참여자들이 이 일자리에 가장 바라는 점은 “계속 일하고 싶다”였다. 지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자리가 어느 날 사업 중단으로 없어질 것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심경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드러낸 것이다. <사진 18>과 <사진 19>는 그러한 바람을 빨간 불이 들어온 신호등으로, 또 쪽 뻗은 도로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 18] 멈춤 없이 계속되기를...(미소)



[사진 19] 공공일자리가 계속 쪽 이어졌으면 좋겠다(미소)



사진 설명: 사진 18과 사진 19는 근로지원인 미소 님이 촬영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멈춤 없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아래 멈추지 않고 걷고 있는 사람은 마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계속 일하고 싶고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는데 외압은 멈춤을 경고하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신호등 없이 쪽 이어진 도로를 촬영한 사진 19는 이 일자리가 쪽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한다.

[사진 20] 나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더 배우고 더 일하고 싶어요(오공)



[사진 21]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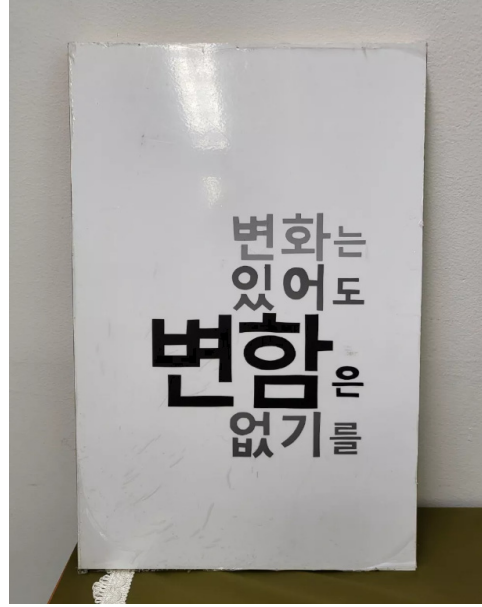


사진 설명: 사진 20은 오공 님이 촬영한 것으로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배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사진 21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취지와 본질은 변함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 연구참여자는 그러한 바람의 구체적인 의미를 국기로 드러내며 중증장애인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다른 연구참여자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이라는 문구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되, 그 본질과 취지는 변함이 없기를 바랐다.

(2) 맞춤형이 가능한 다양한 직무 체계

연구참여자들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가 다양해지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 22>는 중증장애인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사진이다.

[사진 22]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기(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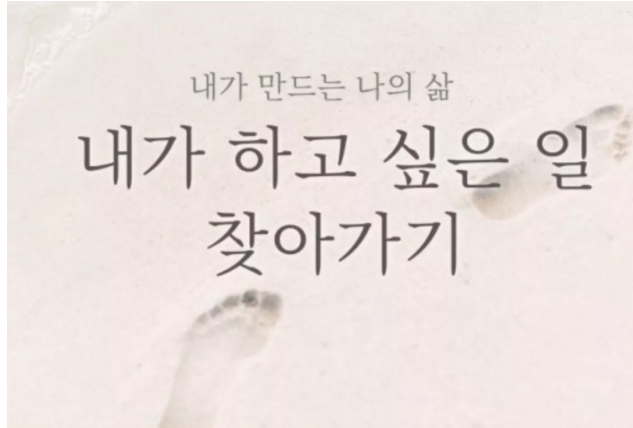


사진 설명: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던 공공일자리 참여자 오공 님의 바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공 님의 마음을 오공 님의 근로지원인이 '내가 만드는 나의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기'라는 문구를 찍어 표현하였다.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직무가 메뉴얼화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센터별로 이용자분(중증장애인)들 상황이 다 다를텐데 메뉴얼화되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배우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으니...그렇게 되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담당자는 직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하, 그룹인터뷰 내용 중)

“내가 하고 싶은 일은...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오공, 그룹인터뷰 내용 중)

“우리 하늘 씨는 모델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다운중후군 분이 모델 광고를 찍은 영상을 봤는데, 하늘 씨도 하시면 너무 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빅사이즈모델 같은 거...그런 기회가 왜 우리에게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 씨는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보금 님은 비장애인들이 국비 지원으로 다양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배우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였다.

(3) 세상과의 소통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 개선활동을 하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소통의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미소님은 마라톤 경주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배지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의미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사진 2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미소)



사진 설명: 보배님의 근로지원인이 촬영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권리중심 권익옹호 모니터링 활동으로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가게 사장님이 환대해 주었는데 그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이 왔을 때도 생각해야겠다고요. 이렇게 이분들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섞여 소통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익옹호 활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그룹인터뷰 내용 중)

5) 중증장애인에게 이 일이 주는 의미

중증장애인의 삶에서 일이란 세상과 연결된 자립의 문이며,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길을 내며 가는 것,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삶의 행복으로 귀결된다.

(1) 세상과 연결된 자립의 문

연구참여자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일 자리를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립의 문인데 아직 활짝 열리지 않는 '살짝' 열린 문이라고 하였다.

“이 공공일자리가 장애인들이 밀고 나가야 하는 살짝 열린 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아직은 활짝 열리지 않는...문고리에 손도 닿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공공일자리가 이분들에게 아직은 그런 문이지 않을까요.” (보금, 그룹인터뷰 내용 중)

[사진 24] 살짝 열린 자립의 문(보금)



사진 설명: 하늘 님의 근로지원인인 보금 님이 촬영한 것으로 보금 님은 공공일자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금 님은 공공일자리가 마치 중증장애인이 사회로 나가는 문인 것 같다고, 그러나 이 문은 아직 '활짝' 열리지 않은 '살짝' 열린 문이라고 하였다.

“장애인 분들이 보통은 집에만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떨치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소, 그룹인터뷰 내용 중)

“‘자립’은 ‘노동’과 연결선상에 있다. 우리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생존하기 위함’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평범하게 노동을 한 후 대가를 지불받고, 그 돈으로 누구는 여행하고, 누구는 가족에게 외식시켜주고, 누구는 가지고 싶었던 것을 샀다 사고, 그러한 기쁨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겐 그렇지 않은 이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다.” (인연, 서면 자료 중)

(2) 혼자가 아닌 함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들에게 ‘동료’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고립’이나 ‘외로움’에 익숙한 중증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겨진다. 이는 삶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의미이다.

[사진 25] 외롭지 않아요(미소)



사진 설명: 보배님의 근로지원인 미소님이 촬영한 것으로 보배님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집에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함께’라는 의미를 가을 낙엽 두 개로 표현했다.

[사진 26] 모두와 함께 살게 해준다(하하)



[사진 27]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료가 되도록 도와주는 곳(하하)



사진 설명: 사진 26과 사진 27은 오공 님의 근로지원인 하하 님이 찍은 것으로,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과 '동료와 함께 가는 길'을 상징한다. 이것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개방적 성격을 띠는 것에서 비롯된 의미이다. 개방적 성격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기존의 폐쇄형 장애인 일자리와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다.

위의 사진도 '동료'와 '함께'를 은유한다.

(3) 길을 내며 가는 것

연구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만큼 자신들이 일하며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참조해 더 좋은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사진 28>은 이러한 바람을 담고 있다.

[사진 28] 누구에겐가 길이 되어 주고 싶어요
힘들때 도와주는 내가 되고 싶어요(오공)



사진 설명: 공공일자리 참여자인 오공 님이 촬영한 이미지로 위에서 아래를 향해 촬영하여 계단이 가파르고 험난해 보인다. 이 사진을 설명하며 오공 님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험난하지만 먼저 올라가 나중에 오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요. 잘 돼서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싶어요.” (오공, 그룹인터뷰 내용 중)

이들의 표현과 관련 사진을 종합하면,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은유된다. 하나는 ‘문’이다. 다른 하나는 ‘동료’다. 마지막으로는 ‘길’이다. 이 세 가지 은유는 ‘관계’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의 경험을 사진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다섯 가지를 테마로 사진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눴다. 첫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이고, 둘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이였다. 셋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궁금한 점이고, 넷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바라는 점이였다. 다섯째는 이들 모두를 종합한 일의 의미였다.

〈표 3〉은 주제별 사진 자료에서 도출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주제를 관념화 하며 생성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에서 발견한 의미는 ‘나도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 ‘성장과 꿈의 발판’, ‘동료의 존재’, ‘사회적응’, ‘존엄한 삶의 시작’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으로 ‘출근’ 그 자체를 꼽았다.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이 주는 만족감,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주는 소속감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중증 장애인들 또한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상당수가 그러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

두 번째 주제인 힘든 점에서 발견한 의미는 ‘선택권이 없는 직무’, ‘관리자 인력부족’, ‘힘난한 출퇴근 길’, ‘혐오 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프레임으로 시작하였다. 이 시도는 사람에게 정책이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이러한 의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맞춤형 지원’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일 자체가 주는 일종의 구속감이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다. 이러한 경험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인 궁금한 점은 ‘사업의 지속성’이다. 이는 계속 일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절박한 현장의 염원을 담은 물음이다. 네 번째 주제인 바라는 점은 안정적인 일자리, 사람 중심 직무 배정,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사회통합이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이 일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만큼 이 일자리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갖고 있었다.

[표 3] 당사사의 렌즈를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현장: 주제별 관념화 결과

주제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			
생성한 의미	관념화	코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 ▲ 성장과 꿈의 발판 ▲ 동료의 존재 ▲ 사회적응 ▲ 존엄한 삶의 시작 	'출근'을 하는 것	출근부에 사인한다 / 출근도 하고 / 출근한다 / 야근하지만 할 일이 있는 것은 가슴 뛰는 일 / 아프지만 참으며 출근한다 내 소중한 일자리 / 행복한 귀갓길	
		월급명세서 / 월급을 받음	
		회사 앞에서 / 명함도 만들어본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꾀는 것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로 자존감 형성 / 자아실현의 꿈을 꿀 수 있는 경험 / 개발과 성장	
	사회구성원이 되는 과정	참을 줄 알게 됨 / 경제활동을 하게 됨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동료	동료가 생겨서 좋다 / 동질감	
	자유로움	자유를 느끼는 것 / 자유로운 외출	
주제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힘든 점			
생성한 의미들	관념화	코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권이 없는 직무 ▲ 관리자 인력 부족 ▲ 험난한 출퇴근 길 ▲ 혐오적 시선 	끼워 넣기식 맞춤	배우기 싫은 것을 배워야 하네요 / 소감나누기 힘든 발달장애인 / 근로지원인의 일?	
		관리자의 과중 업무	매일 다른 직무 프로그램 구성하기 / 부족한 전담인력
		험난한 출퇴근 길	저상버스 부족으로 출퇴근이 힘들 / 위험한 보도블럭 / 만원버스를 타야하는 고충
		전쟁터 같은 일터	시끄러운 장소에 지속 노출 / 전쟁터나 감옥 같음
	사회적 시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들	
주제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궁극한 점			
생성한 의미들	관념화	코딩내용	
▲ 사업의 지속성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멈춤없이 계속 되기를... /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 우리도 비장애인처럼 나이를 먹는데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주제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바라는 점			
생성한 의미들	관념화	코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일자리 ▲ 사람중심 직무배정 ▲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 사회통합 	계속 일하고 싶어요	동료들과 함께 꿈꾸며 꾸준히 일 할 수 있기를... / 더 배우고 더 일하고 싶어요	
		맞춤형이 가능한 다양한 직무체계	다양하고 즐겁게 꿈을 이루길 / 직무프로그램의 기준과 매뉴얼화 /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 누구를 위한 노동인가?
		세상과의 소통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주제 [5] 일의 의미, 중증장애인의 삶에서 일이란?			
생성한 의미들	관념화	코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을 여는 문 ▲ 함께 가는 길 ▲ 삶의 행복 ▲ 존립 	세상과 연결된 자립의 문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 / 자립의 문 / 세상과의 소통 창구 / 나를 존 재하게 한다	
		혼자가 아닌 함께	외롭지 않아요 / 마주 볼 수 있게 해 줘 / 모두 함께 살게 함
		길을 내며 가는 것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싶어요
		삶의 행복	삶의 활력소 / 하고 싶은 일로 행복 / 풍요로움

다섯 번째 주제인 일의 의미는 '세상을 여는 문', '함께 가는 길', '삶의 행복', '존립'이다. 이들에게 이 일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며, 누군가와 '동료'가 될 수 있는 기회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제시하고 싶은 '길'이다. 이들의 일에 대한 의미 부여는 오늘날 '일' 상당수가 그러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들이 사진으로, 문장으로 표현한 자신의 경험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모든 이들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일'을 찾고,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상상을 하게 한다. 동시에 '일'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묻게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되묻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사업'이 갖는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또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과 '노동'을 연결해보려는 이 시도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철·이민영. 2022. “유아와 교사가 만들어가는 ‘기록’의 모습과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7(2):87-117.
- 이윤지·임예직·이지우·조신영·변민수·김호진·최종철. 2023.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1a.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 실태조사 보고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1b. 『장애인노동과 노동의 전환 좌담회 자료집』.
- 조혁진·명숙·고태은. 2022.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 Hussey, W. 2006. “Slivers of the Journey: The Use of Photovoice and Storytelling to Examine Female to Male Transsexuals’ Experience of Health Care Access.” *Journal of Homosexuality* 51(1):129-158.
- Jurkowski, J. M. and Paul-Ward, A. 2007. “Photovo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Addressing Disparities in Health Promotion amo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ealth Promotion Practice* 8(4):358-365.
- Latz, Amanda O. 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참여적 행동 연구』. 김동렬 옮김. 학지사.
- Wang, C. and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4(3):369-687.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인 쇄 2023년 12월 26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현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주)명진씨앤피(02-2164-3000)

©2023 국회미래연구원

ISSN 2983-4392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